



예수께서 내시는 식사
오병이어

2013

5월

FACEBOOK.COM/FIVEBREADS.TWOFISH

Father's Warehouse: 515 Crocker st, LA CA 90013 Staff House: 520 E. 5th st, LA CA 90013

목자들 을 치라!



오병이어 홈페이지/이메일 5Breadsand2Fish.org / 5Breadsand2Fish@gmail.com / 323.400.7830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5월 첫째주 푸드 드라이브는 세군데를 들렸습니다. 두군데의 마을과 한 곳의 고아원.

첫번째 마을에 갔더니, 깔끔하게 옷을 입은 여자가 얼굴에 함박웃음을 머금고 우리를 맞이하는데, 공터에 깔아놓은 의자에 티켓을 한 장씩 들고있는 주민들이 쭈욱 앉아 있고, 스피커에서는 DJ가 신나게 틀어주는 음악이 온 동네를 뱅뱅 때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동네 교회에 푸드 드라이브 간다고 이야기를 해놓았더니.....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그다지 가난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온 맛있는 파이와 빵, 과자들을 한아름씩 안고 가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

음은 그다지 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교회에서 동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 트럭에 싣고 간 음식이 반이 조금 안되게 남았습니다.

“가까운데에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함께 했던 세실리아, 아드리아나, 마리벨, 코넬리오스가 정말 힘든 동네라고 말하며 우리를 데리고간 곳은 첫 번째 마을에서 한 두 고개 산을 넘어 자리잡은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산비탈에서 한 고개를 넘으니, 바다가 보이지 않는 산비탈 쪽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가난이 눈과 피부로 느



꺼지는 산동네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며 트럭으로 비탈을 내려갈 때, 급경사와 울퉁불퉁한 길 상태때문에 손잡이를 꼭 잡고 차안에서 겁이 나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트럭이 잘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무사히 마을에 도착하니,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집들이 장관을 이루고, 아늑한 산길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멕시코 분들은 선명한 색깔을 가진 꽃들과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가난해도 형편만 허락한다면 집을 형형색색의 낭만적이고, 낙천적 느낌으로 페인트하기 좋아합니다. 비록 쓰고 남은 팔레트 판자 쪼가리들을 이어붙여 만든 집이라도 멀리서 보면 마을 자체가 아기자기한 정일같습니다.

상할까봐 트럭 뒤쪽으로 놓은 계란과 치즈들, 땅콩등 좋은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독특한 점이 모든 집들이 예전에 한국처럼 주인없는 땅에 지은 무허가 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빈 땅에 집을 짓고 전기도 없이, 물도 없이 살다가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자신들의 형편을 감안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리벨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동의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이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한 남자가 덧붙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의



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께 마을을 떠나기 전에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No more tears! (이제 눈물은 그만!)”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감정은 그만! 무릎에 힘을 주고, 이제는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표현 할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를 감싸는 것 같더니, 사람들이 손을 들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하늘이 산꼭대기위로 살쁘히 내려앉은 느낌이 들면서 천국이 매우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61:1~2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간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땅을 밀고, 다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백개의 계란과 빵 몇 박스, 과자, 사탕들이 남아서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커다란 건물이 고아원이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고아원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파킹장과 관리가 잘된 정원, 큼직한 건물들이 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가지고 간 음식을 들고 사물실안으로 들어가니, 한쪽 벽장 안에 크레용, 색연필, 노트 등이 새 것인채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반갑게 우리를 맞은 사무실 직원이 건네준 자료를 보니, 지금은 96명의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음식으로 그래도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불라에 허락하실 의의나무 고아원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손에 껌을 들고 아장아장 걷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난생 처음 빈대를 보았습니다.

우리 스테프들이 베드버그(BED BUG)에 게 물렸다면,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마리를 잡아서 병이 넣어왔습니다. 5mm 정도 되는 납적하고 다리도 많은 꺼먼 벌레가 병안에서 꼬물대고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아서, 바로 벌레퇴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가 구석구석 처치를 마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베드버그는 잘 안죽어요. 나무를 좋아해서 구석에 납작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침대를 버리세요.”

침대를 버리라니요! 산건너 산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베드 버그라는 벌레가 바로 말로만 듣던 빈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담에도 빈대붙는다, 빈대 없애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하는 그 유명한 벌레 말입니다.

유럽이나 뉴욕에서도 빈대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는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그 벌레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밤이 되면 어떻게 피를 빨러 나오는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침대와 가구를 버리는 것이 낫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잘 몰라서 고민을 하며 잠이 들었던 그날 밤. 턱이 따금하면서 턱에서부터 얼굴 전체로 뜨거운 피가 쏘려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잠결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불을 켜셨습니다. 목사님도 발

족이 따금하셔서 잠을 깨셨다고 합니다. 이 불을 뒤적뒤적 거리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턱을 만져보니 아주 작게 여러 군데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턱쪽에 닿아 있던 이불을 들추었는데..... 거기에 지난번 병에 담겨 있던 것과 똑같이 생긴 빈대가 한 마리 통통한 배를 안고 암전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이불위에 작은 빈대 한마리가 잠결에 일어나 놀란 눈에는 영화속에 일리언처럼 크게 보였고, 인터넷에서 보았던 확대사진 속 빈대의 주둥이가 내 턱에 꽂혀서 피를 빨렸다고 생각을 하니 참을 수 없이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레가 자기도 놀랐는지 꼼작않고 죽은 척 하고있을때 이때다하고 목사님이 얼른 빈대를 잡아 죽이는 것 보고서야 숨쉬는 걸 잊고 있던 내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작았던 벌레물린 자국이 점점 커지면서 동전만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린 자국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빈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빈대가 피를 빨기는 하지만 병을 옮기지는 않는다고 해서 마음을 좀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은 다른 쪽 얼굴의 관자놀이를 5군데, 또 다음날은 광대뼈 근처를 5군데 정도 물릴 때까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기만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아이들도 몇군데 물렸고, 특히 작은 아이는 살갓이 까지도록 물린 자리를 긁어놓았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그냥 간지

럽다고 하는대로 약만 발라주었습니다.

목사님도 손가락마디, 발바닥 같이 가렵긴 한데, 정말로 긁기도 괴로운 곳을 물리고 계셨지만 아이들과 내가 힘들어 할까봐 아무말도 안하고 벌레 물린 자국에 연신 약만 열심히 발라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뭐...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하실 이유는 없는데...

예전에 오병이어 레스토랑에 유난히 짐이 많은 손님들은 우리 스테프들이 그 짐을 바깥에 놓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 안에 벌레가 나와서 식당안에 퍼지면 큰일이라고 했을 때, 막연히 두려워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벌레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버그, 빈대였던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물린 것을 보고, 어쩔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조용히 여쭙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벌레들 좀 없애주시면 안되나요? 너무 짜갑고 징그러워요.’

그리고 보니 우리가 스키드로에 온지가 벌써 1년하고 6개월인데, 많은 홈리스분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이 빈대 문제가 이제서야 터졌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충과 재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고 계신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스키드로의 노숙자들을 중심

으로 결핵이 만연해져서 2013년 2월말 현재까지 4,650명의 감염사실을 확인되었는데, 이 숫자는 이곳에서도 10년만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을 이유로 짧은 기간 동안에 11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학교나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일이 났었다면 사람들이 더 크게 동요했을 테지만, 결핵사건이 있고 FBI가 조사를 하러 몇번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듯 다른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빈대와 결핵을 가까이에서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빈대에게 물리기 전까지는 그들이 매일 매일 얼마나 많은 일들로 시달리고, 걱정하고, 잠을 못이루고 있는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키드로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빈대는 얼마나 하찮은 문제이겠습니까...?

과거 우리 나라에 빈대가 많았지만 가구를 버리지 않고도 빈대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져서 빈대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가구를 버리라는 것은 아마 빈대가 너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경우이거나, 혹은 벌레퇴치하는 분이 본인들 비즈니스를 위

해 말씀하신 것일 수 있겠다싶었습니다. 또 일반 세제를 물에 조금 섞어서 뿌려주거나 알콜 50%를 뿌려주어도 빈대를 비롯한 다른 벌레들에 대해 살충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침대 코너와 가구의 구석에 푹 젖도록 2주정도를 뿌렸더니 빈대가 다 없어졌다는 매우 성실하고, 성공적인 경험담도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규조토(Diatomaceous Earth)라는 플랑크톤이 만든 퇴적암 가루를 뿌려놓으면 모든 벌레들이 지나가다가 가루가 몸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규조토가 방습제처럼 작용을 하면서 벌레가 바짝 말라 죽게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규조토는 그외에서 청소용 여러가지 용도가 많은 제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에 있었지만 LA 아버지 창고로 배달이 되도록 가장 먼저 50파운드의 규조토를 구입해서 반자 마자 구석구석에 뿌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멕시코에서는 살충제 한 통과, 알콜, 빈스프레이통을 구입해서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날밤에 다시 한번 더 목사님께서 자다말고 벌떡 일어나셔서 한마리 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큰 놈으로 한마리를 잡고 나서 나도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물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콜과 살충제가 빈대들을 다 죽였기를 바랐는데.... 자꾸 물리다보니, 이제는 모기에 물리는 거나 빈대에 물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벌레 물린 곳을 되도록 긁지말고 빨리 약을 바르면 금방 붓기도 내려갑니다. 처음에 빈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테프 하우스에서 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멕시코 집에서 아랫층 살바더가 15년간 사용하던 창고를 비우면서 그 안에서 오래 살고 있던 빈대들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동시에 두 군데서 다 물려온 것 같기도하고....

스키드로에 있는 아버지 창고쪽으로 가다보면 길가에서 나름대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 많은 홈리스분들을 봅니다. 그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빈대들이 아무 대책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여기 사람들의 또 다른 불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짐을 정리하고 빨래와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스키드로 사람들은 이상하게 본인의 짐들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역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 대한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성실하게 큰 알콜을 반통이나 방에 뿌리셨습니다. 오늘은 빈대한테 물리지 않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또 목사님이 미안해하시는 것을 보고싶지가 않기도 해서 말입니다.

18살, 샘(사무엘)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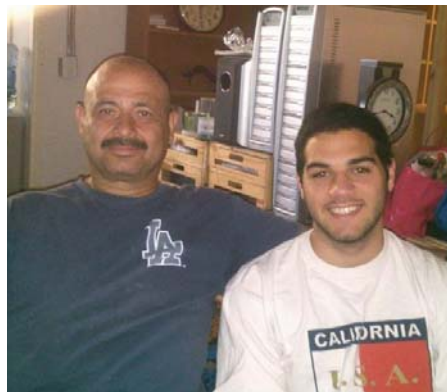
몇 달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은 샘이고 18살인데, 지금 대학교를 중퇴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 썬타모니카로 무작정 와서 며칠간 홈리스로 있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하지만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시키드로에서 홈리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했더니, 지금 가도 되냐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이도 어린 그가 잠시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빠 다니다가 창고에 들어왔는데 말끔하고, 잘 생긴 청년하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선교사였던 부모님 밑에서 온 가족이 차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주 힘들게 살았었다고 합니다. 스텝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18살 샘이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노라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가난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참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의나무 사역 1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계속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가 걸었던 순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고 그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새

벽기도때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 늙어서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 우리 뒤에 올 의의나무들은 우리보다 더 성령충만하고 하나님의 불이 활활타는 사람들로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워낙에 오병이어 식구들이 많은 터라 식탁에는 항상 누군가가 뜯어놓은 시리얼이나 먹다 남은 과자, 파이들이 수북합니다. 오래지 않아 샘이 절대로 새 봉지를 뜯지 않고 누군가 먹다가 남긴 음식들을 먼저 먹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이기는 하지만 너무 그러면 힘들까봐 그럴 필요 없다고 너도 다른 사람처럼 너 먹고 싶은 것을 찾아서 먹으라고 말을 해주었는데도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를 보면서 어른인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멕시코 산토토마스에서 주말마다 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샘을 위해 신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사역하고 학교에서도 재미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고넬리오스가 너무 좋은 곳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걱정마세요. 잘 될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보고, 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고넬리오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DIF의 책임자였던 세실리아가 일을 그만두고, 그녀의 측근이었던 고넬리오스도 그 다음주에 바로 DIF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가장으로써는 그나마 빠듯한 살림에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을 할때마다 그는 “그래요, 알아요, 알아요.” 했지만 불안한 눈동자가 언제나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온통

기뻐하는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찾았어요. 전에 DIF에서 받던 월급의 3배가 넘는 곳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진짜로 적시에 그를 도와 주셨습니다. 좋은 자리일 것이라는 것은 대충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좋은 조건인 줄은 몰랐습니다. 월급뿐만아니라, 다른 세금 공제 혜택들도 많아서 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책임자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코넬리오스, 그의 부인인 도라, 목사님, 나. 다 같이 그의 작은 부엌겸 거실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가 뜻밖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셨어요.”

참고로 그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여지껏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과 정직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고, 커피도 술고 마시지 않고, 음주수라고는 우유만 좋아하는, 멕시코 사람치고는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너무 막막했던 어느날 그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집으로 오고 싶다는 그를 진정시키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시보다 솔직하게 물어보고 마음을 쏟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서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면서 말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같지도 않지만 솔직한 그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전화가 한 통왔답니다. 바로 자리가 하나났는데 그에게 일하러 와줄 수 없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너무나 좋은 조건에 긴가민가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또 목사님께 전화를 했을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단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가 정색을 하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내 인생에 걸어들어온 뒤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잘 알아요. 이번에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습니다.”

믿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하면서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밝은 얼굴로 한번도 빠짐없이 푸드 드라이브에 자원봉사자로 함께 해주었던 그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것을 뻔히 아는데도, 푸드 드라이브에 가서 음식을 나눌 때 한번도 욕심껏 자기 것을 챙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그입니다. 좀 멀리 푸드 드라이브를 갔던 날, 함께 갔던 팀 중 한 차가 따라가던 차를 놓쳤을 때, 우리가 전화도 안되는 곳에서 일행을 잃게되어 발을 동동구르고 있을 때 옆마을까지 끝까지 찾아다녀 그들을 데리고 왔던 책임감있고 성신했던 그입니다. 이번에도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힘들게 사는 친척들을 도와줄 생각부터하는 착하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곳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음을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눅 5:38~39)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들도 참 여러 부류입니다. 오병이어에 발길을 들이자마자 시작된 눈물이 돌아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오자마자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전도단이나 일반 교회 청년부팀 중에서 이미 많은 자원봉사에 단련이 된 친구들은 역시나 구석구석에서 제일 힘든 일을 찾아서 묵묵히 일을 끝까지 마치고 갑니다.

반면에 오시면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받아오는지 어떻게 하면 본인들도 우리처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려는 태도가 역력

한 분들도 있고, 이왕 왔으니 최대한 많이 받아 가려고 눈빛을 빚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중에 오셔서 본인이 해오신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드리면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휘저려고 하십니다.

누가 오든, 항상 우리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불편하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싫어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로써 새 포도주가 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을 치라

120에이커의 땅에 첫삽을 믿음으로 푸라 명하신 날이 었그젠데..... 한국에 가야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긴박감과 양심의 떨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국에 가지 아니하면, 양심에 무게를 재어보관데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할 밖에요.... 역시 우리들의 모든 순종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것 뿐인 것이 분명합니다. ‘즉시순종’ 을 훈련하는 터라 의심치않고 여쭙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왜 가야하나요? 가서 무엇을 해야하나요?”

여쭙는 사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에스겔서 33장, 34장 본문으로 ‘목자들을 치라’ 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보았습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니 이것은 싸움에 뛰어들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욕을 먹을 텐데요?” 갑자기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넌 누구냐?’ 란 고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벌써부터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본문과 더불어 3가지 분명한 것을 지적해야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굳건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릇된 목자관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목자임을 전하고 목사는 목자가 되려하지 말고 오직 섬기는 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릇된 교회관을, 온 천하에는 단 한가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교회를 책임지려하는 책임의식에 불을 붙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그릇된 성령을 향한 자세인데, 그것은 그 어누 누구도 성령을 지닐 수도, 가질수도, 임의로 누릴 수도 없고 오직 성령(하나님께)께서 우리를 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속하여 소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때 귀있는 자들은 목사를 목자라 부르며 실망하거나, 욕하기 보다는 주 안에서 사랑하여 형제들로 서로를 책임을 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목자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염치없는 것이며 그릇된 것인가를 알리어 그들을 오해에서 자유케 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교회, 니 교회라는 표현 속에 찌어빠진 사탄의 경쟁구도가 뿌리 뽑히고 서로 한 몸으로써 책임을 지기 시작하도록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나, 능력을 자신들의 것인양 자랑하여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릇된 망상들과 허위적인 삶에서 오직 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스의 영에 속하여 “과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고백이 믿지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와야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좀 욕을 먹어도, 돌을 맞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